머리말

가까운 친구들은 자주 내가 걷어온 인생역경
과 사업경영에서 얻은 소안과 통찰력을 세상에
남리 알려야 한다고 종종해 왔다. 그것이 한편
으로는 사회에 공헌할 우수한 젊은 인재의 향
상심을 북돋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본투해
온 삶의 발자취를 충실하게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두게 된다고 말하였다.

회고록을 쓰기로 작정하고 나서 나는 곧 내
주변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성장
배경, 학생시절, 취업하여 Evergreen(長榮)그룹
(편집자 주 : 이하 에버그린그룹으로 표현함)
을 창업하기까지 각 단계에 걸쳐 정리, 귀납하
여 나의 이야기가 속적하고 분명하게 기록되도록
유의하였다. 에버그린의 급속한 성장에 관한
각가지 유언(流言)과 억측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하여 사실의 진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
다.

유년시절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직장생활을
가져 오는 에버그린그룹 창립하기까지의
70년의 내 인생 행보를 통하여 해양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꿈과 포부를 키워 주는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를 위해 산다.'
는 말한 바로 나와 응장한 한바다의 꿈을래
아 꿈을 수 없는 의존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매 에버그린이 무명의 소규모 회
사로부터 세계 제1의 규모로 발전한 것은 ‘신
화’이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결
단코 우리의 성공에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성공을 지탱한 것은 나와
내 동료들이 불요불굴의 결의로 사심없이 수많
은 시간과 심혈 및 금전을 경중한 때문이었는
예어그린 張榮發 회장 회고서 ①

t. 이들 외부 사람들은 해야 할 길이 없을 것이 다.

창업 초기에 끊임없는 좌절과 역경에 직면하 여 타개할 방도가 없어서 얼마나 내심 방언자 실하였던지를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짐작만한 과도에 계속해서 없이맞아 큰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자세한 계획과 신중한 계획을 세울수도 불구하고 막상 집행해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차례로 생겨나 나로 하여금 끝끝검음으로 헤동 대며 대응책을 강구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 차례 신신이 기진맥진하였으나 야gba는 칼 흙같이 엎들었다. 이때 나의 결정은 '울고 싶으 나 눈물마저 떠랐다.'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다행히 나는 이내 의지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EVA Air(長榮航空)을 창립할 때에는 끊임없 는 음해와 비망공세에 시달렸다. 자유롭고 공정 한 설계 경쟁을 우롱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 나는 한때 항공사업에 참여하려는 결의를 청희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늘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을 모른다 자위하면서 혼히 멀어져 나갔다.

오늘날 예어그린그룹은 해·륙·공으로 지구 전체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이 되었으나, 창립 초기에는 장차 사업 규모가 이처럼 음대하게 발전하려고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는 단지 회사 경영에 전심전력을 기울였고 사업이 잘 풀리는 데 만족하였을 따름이다.

예어그린그룹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과 사회 각계의 여려분의 후원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타격을 입을 때마다 나는 문득 제자무리 노력할지라도 일이 모이기만 하는 것은 전생에 수행(修行)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르 고 흔들렸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업 규모가 확장하면서 나는 지난날의 불행을 닦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하늘은 인간의 고뇌를 이용하여 나의 결의를 시험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시련을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시중 인간(人性)은 선망하다고 믿는다. 그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자기의 선망한 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은 인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확신한다. 기업가는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에게서 받은 호의를 보답하는 아니라고 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의 대중에게 분사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자신의 성장기에 쉬어 열 광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창업의 역정(歷程) 중에서 배우고 체험한 교훈과 인간 관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 책을 젊은이들로 하여금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파도에 용기를 내결하여 자기 자신을 항상 발전시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운영을 개척하는 주인이 되도록 개발하고 격려하 게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많은 실익과 우여곡절로 점철된 현실의 변천(變遷)은 나에게 “인생은 너무나 많은 젊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하므로 조급하게 결론 을 내려서는 아니된다.”는 말을 깊게 새기게 만든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불 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하여 극진하기를 바란다.